

##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552-8300 FAX: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 오늘부터 주일 찬양예배 오후 5시

### 전 교인이 참석 은혜로운 예배 드리도록 수요 예배 저녁 시간은 종전과 다름없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찬양예배가 오후 5시로 변경되었다.

그 동안 저녁 예배는 오후 7시(9월~3월) 혹은 7시 30분(4월~8월)에 회집되었으나, 지난 8월 정기당회에서 9월 첫주부터 저녁 예배시간을 오후 5시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먼 거리 교인들의 저녁 예배 참석과 찬양예배 이후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권장하기 위한 이번 시간 변경 조치는 충현교회에서는 두번째이며, 교구 및 지회 활동 이후의 약 2시간 공백 때문에 부득이 저녁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는 유효 적절

한 시간이다.

이번 계기로 저녁찬양예배에 온 교인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한편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후 7시로,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로 시간이 조정되었다.

## ◆ 예배 및 기도회 시간 조정표

|         | 변경전                              | 변경후       |
|---------|----------------------------------|-----------|
| 주일 찬양예배 | 오후 7시(9월~3월)<br>오후 7시 30분(4월~8월) | 오후 5시     |
| 수요 2부예배 | 오후 7시 30분                        | 오후 7시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 오전 5시 30분 |

## 시모 경건 훈련 실시키로

우리 교회는 전국 목회자 사모들의 영성 증진을 위하여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충현기독교원에서 사모 경건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모 경건 훈련의 강사로 는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

종 목사, 유창무 목사(기도원 지도), 현신에 권사이며 특강 강사로는 윤석진 목사(연희중앙교회 시무), 주선에 교수(장신대), 양은순 교수(충신대)가 수고하게 된다.

## 사랑부 개교 4주년 기념 예배

사랑부(부장 조선근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오늘 개교 4주년을 맞는다.

이에 사랑부에서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사진과 작품들을 교육관 1층 복도에서 전시한다.

한편 교사들의 역할이 다른 부서보다 중요시 되는 부서의 특성을 살려 태교사 초청 좌담회도 갖는다.

장애아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있는 사랑부는 매년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 우리 농촌을 돕기 위해 전개된 농산물구매운동은 또 하나의 구제 및 전도 방법임을 경험케 하였다.

## 13일 공동의회 소집 제27대 장로 선거 위한 의안 심의

당회는 제27대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오는 9월 13일 소집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난 9월 2일 소집된 8월 정기당회에서 의결된 공동의회 소집 절차에 의하면, 13일 공동의회서 장로 선거에 대한 승인을 얻고 16일 장로 후보자 공천(주간충현에 게재), 그리고 9월 27일 장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장로 선거는 지난 3월 실시한 제26대 장로 선거의 계속으로, 2차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 필요한 인원 공천 과정, 선거 절차는 공동의회 결정에 따라 처리된다.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우리 교회 등록 교인으로 세례 교인이여야 한다.

## 김창인 원로목사

수도노회 공로목사 추대 청원

당회는 수도노회에 김창인 원로목사를 노회 공로목사로 추대해줄 것을 청원키로 하였다.

## 교회인사

- 초등5부 지도 이인우 강도사
- 중등3부 지도 정연해 강도사

## 한국 운전기사 선교 연합회 개최 부부세미나 협조

우리 교회는 한국 운전기사 선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회 부부 세미나를 선교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오는 9월 22일 우리 교회 갈

릴라홀에서 개최되는 이 세미나는 참가 예상 인원이 1천여명으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설교를 담당하게 된다.

## 충현프리즘

◎...오늘로써 우리 충현교회는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는다.

1953년 9월 6일 서울 인현동 2층 다락방에서 18명의 생도가 회집하여 동일교회라는 명칭으로 첫 예배를 드린 후 만 39주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중년의 나이를 거쳐 장년의 나이로 들어서는 우리 충현교회는 명실공히 한국 교회 설립사상 그 유례를 별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교인수라든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과히 맘모스적이며, 성도들의 믿음생활은 복음주의 보수 성향으로 교육을 받아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만하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교인들, 교회 봉사 및 이웃 구제를 앞장서서 실천하려는 직분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행정 및 치리로 화평과 성도의 교제를 원만히

유도하는 당회원들이 있는 한, 우리 충현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주일 성수를 으뜸으로, 교육과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고, 교인 배가 운동에 온 교인들이 열심을 다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소원한다.

◎...9월 들어 교회는 바쁘게 되었다.

성경연구원이 개강되고 목회자 세미나가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되며, 기도원에서는 목회자 사모 경건 훈련, 그리고 우리 교회 55명 교역자들은 1박 2일 코스의 교역자 수련회 등이 있다.

또 92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도 병행되는데, 이번 학기의 수혜자는 78명으로 약 3천 7백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우리 농촌에 도움을 드립니다

- 전도와 구제 차원에서 전개된 우리 농산물 구입에 성도들이 적극 협조해 줌에 따라, 하루 더 그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날짜: 9월 9일
- 장소: 뱃바게광장

## 92년도 동산 후원비 접수

- 후원비: 2만원
- 대상: 92년도 동산 후원비 미납 성도
- 접수: 사무국 (교육관 102호)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 신자와 재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6:19~34)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싸움, 미움, 질투, 살인 등이 벌어집니다.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며 없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질에 대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 1. 물질에 대한 근본 원리

##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공급받을 줄로 믿는 신앙 필요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은 땅에 쌓아두고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질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LA에서 발생했던 흑인폭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처럼 되어버린 그곳은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했습니다. 그들이 남보다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내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부를 위하여,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선교 차원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돈을 좇아가다가 하루 아침에 잣대미가 되고 보니 허무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물질은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소용 없게 되고 맙니다. 그 결과 물질을 위해 사는 삶은 소용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 2.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마6:19)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 견직물입니다. 옷감이 귀하던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듯이 당시의 유대 지방에도 옷감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견직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말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또 구리나 은 등의 귀금속 역시 땅에 두게 되면 동록이 슬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맙니다.

곡식 같은 것은 도적에게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당시의 그들은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방은 한 칸밖에 없었습니다. 도둑은 흙으로 된 벽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갔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견직물은 좀이 먹고 금속은 동록이 슬고 곡식은 도둑에게 빼앗김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쌓아두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보물로 여기는 것이 다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보석 등을 보물로 여길 것입니다.

## 3.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0, 21)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히브리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부의 신도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를 우리는 맘몬이즘이라고 합니다.

물질은 마치 우상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6:22)

이 말씀을 보면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

고 했습니다. 눈은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 색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여기서 ‘네 눈이 성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문 성경을 보면 ‘단순하다, 건전하다, 관대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해볼아야 할 것입니다.

## 4.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차례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6:31, 32)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

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잘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 5. 구체적인 실천 비결

첫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한 주간의 첫 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셋째는 수입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를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검소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넷째는 만사를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인 동시에 하나님

##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제일주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입니다. 어제는 과거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그날 최선을 다해 생활해야 합니다. 하루의 피로움은 그날로서 족한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되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피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6:33, 34)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물질, 권력, 인기 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 >신성종 목사 저서<

|          |          |
|----------|----------|
| 신약총론     | CLC      |
| 신약신학     | CLC      |
| 요한계시록강해  | 도서출판 엠마오 |
| 로마서강해    | 도서출판 엠마오 |
| 사도행전강해   | 도서출판 엠마오 |
| 기독교의 ABC | 도서출판 엠마오 |
| 초급 헬라어   | 충신출판사    |
| 신약역사     | 신행협회     |
| 엠마오 성경연구 | 도서출판 엠마오 |

## ④ 목표

뉴 에이지 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의 설립자 블래바트스키의 <신지학의 열쇠>(The Key to Theosophy)와 뉴 에이지 운동의 공식적 주창자인 마릴린 퍼거슨의 <물병자리 공모>(The Aquarian Conspiracy)에서 주장하는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본주의의 부활이다. 제2의 르네상스(Re-Renaissance)는 인간 스스로 잠재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뉴 에이지 운동의 각종 활동에 심령술, 초능력, 최면술 등이 강조되는 것은 기존 종교의 신에 의해 끌려가는 나약한 인간상이나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기존의 모든 비인간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인류가 하나 되는 인류 박애주의적 평등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상의 목표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주장해야 하는 올바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위치에 설 때 가능하다는 방법론이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뉴 에이지 운동은 비기독교적이다.

## ⑤ 활동

명상 및 요가, 심령술, 자동기술(Automatic Writing : 각종 서적들이 영적 차원, 즉 영들이나 텔레파시 등을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함), 초능력, 마인드컨트롤,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기호, 예술(음악, 특히 명상 음

## ▶ 증현논단 ▶

## 뉴 에이지 운동과 기독교의 대응(2)

장봉생 목사(고등부 지도)

1. 들어가는 말
2. 뉴 에이지 운동의 정체
3. 우리나라에 나타난 뉴 에이지 운동의 흐름
4. 기독교의 대응

악, 치료 음악이 많다. 미술은 순수 미술보다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영상매체)

위의 방법이 모두 다 뉴 에이지 활동이 아니라, 뉴 에이지 사상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이용될 때 그러하다.

## 3. 우리 나라에 나타난 뉴 에이지 운동의 흐름

## ① 종교단체

기존의 종교단체들이 뉴 에이지 운동은 아니다. 그러나 뉴 에이지 운동의 사상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불교, 무교(巫敎), 도교, 단학(丹學), 증산도 등이 있다.

## ② 서적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명상 서적들이다. 크리스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 라즈니쉬의 <죽음의 예술>, <잠에서 깨어나라>, 오즈 라즈니쉬의 <배꼽>, 바바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년>가 있으며, 그의 <꼬마성자>, <성자들의 마을>, <빠빠라기> 등이 있다.

## ③ 만화

허영만의 <블랙홀>로부터 시

작해서 조운학의 <텔레파시>, <유체이탈>, 이현세의 <악마의 성전>, 박봉성의 <기(氣)>, <천부경>, 황성의 <대군신>, <죽음의 제왕>시리즈가 있다.

## ④ 음악

김도향의 태교음악,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December), 크리스찬 릴홀드의 '허공의 자리', '레이턴치' 등이 있는데, 모든 팝 또는 록 계열 음악을 뉴 에이지 운동의 음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리고 뉴 에이지 음악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사랑, 행복이라는 주제를 따고 있는 반면에, 사탄주의 음악은 파괴, 반도덕, 사탄 숭배를 다루고 있는 데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요즈음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심리치료법으로 뉴 에이지 음악을 채택하기도 한다.

## ⑤ 영상 매체(영화, TV 등)

엔젤하트, 코난 시리즈, 나이

트 메어 시리즈, 늑대와 미녀 등이 있다.

## 4. 기독교의 대응

기독교는 지난 교회의사의 흐름을 살펴볼 때, 끊임없이 반기독교적인 운동의 도전을 받아 왔으며, 비기독교적 문화의 침바구니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런 점에서 뉴 에이지 운동은 새로운 운동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아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또 다른 양태의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도전은 항상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유일하신 인격적 존재, 창조-타락-구속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적 역사관, 피조 세계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이원론의 극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만 가능하며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등 기독교 세계관 및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굳게 세워야 한다.

② 뉴 에이지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된 기독교적,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의 틀에서 벗어나는 주장에 대하여 자세한 이해 없이 적그리스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③ 따라서 뉴 에이지 운동을 말세의 적그리스도, 666, 세계정부 등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시각으로 매도해버려서는 안된다. 좀더 객관적 판단과 연구를 위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적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④ 진정한 교회 변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그 해결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

⑤ 특히 동양 사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서구 사상의 한계가 동양 사상의 접목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바, 한국 기독교 역시 한국적, 동양적 토양 위에 진리의 말씀을 세우며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 바로잡음

지난호 장로 칼럼 중 "인자"는 "아버지(혹은 하나님)로 바로 잡습니다." (편집자)

## ● 독자의 글 ●

## 발자국

하대선 장로(행정위원장)

나이가 통계상의 평균 수명에 가까워지니, 때때로 "멀지 않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설텐데, 그때 무슨 보고서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신 주님의 품 속에서 행복하기만 했던 한 평생이었다. 24년 동안이나 고향 부모 슬하에서 살게 해주셨고, 40년을 타향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늘 부족한 죄인의 나그네길을 외롭지 않게 이끌어주셨으며, 때를 따라 배불리 먹여주셨고, 따듯이 입혀주셨으며, 가정에는 인자한 아내와 사랑스런 4남매

를 주셨고, 그런 대로 넉넉한 물질도 허락해주셨으니, 어찌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때는 "주님, 주님" 하고 매달렸고 어려울 때는 "주님, 왜 나를 배리시나이까" 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은 과거는 어떻게 아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 욕심과 유혹에 현혹되어 망황했던 부끄러운 행적들은 다 무슨 말로 고할 것인가. "때는 가까워 오는데... 속히 옛사람을 벗고... 기쁨 등불 준비해야 될텐데..." 초조한 이 마음을

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언젠가 읽었던 대이턴 무어의 글이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스며든다.

어느날 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 하늘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 장면들이 번득었다. 어느 장면에서나 모래 위에는 두 갈래의 발자국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그 자신의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가 되는 때가 많았고, 또 그런 일은 그가 가장 울적하고

슬픈 일을 당했던 때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

"제가 일단 주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늘 제 곁에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은 제 곁을 떠나셨군요."

주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결코 그대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발자국이 하나가 된 것은 그때마다 그대를 업고 왔기 때문이야."

"오, 주님! 그렇게 이 죄인도 어려운 고비마다 업어서 건너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저도 어찌나 한번쯤 단 몇 발자국만이라도 주님을 업고 곁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죽음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수 많은 빛을 질머지고 살아온 빛쟁이지만, 가끔이라도 한번씩은 빛을 갇는 흉내라도 내며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부채 상환을 위하여 할 일은 많다. 먼 곳에 눈을 돌릴 필요도 없이, 나의 바로 이웃에 구원의 손길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불신의 형제가 많고, 구제의 손길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불우한 자매가 도처에 있지 않은가.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되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리라.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착한 일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보고서도 한, 두 가지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행 24:16)

작년 8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의미있는 국제대회가 열렸다. 제1회 한일기독교청년교류대회가 그것이다. 그 대회는 일본 복음동맹교단과의 선교적 교류의 일환으로 당 교단 산하 160여 교회로부터 선발된 52명의 청년과 충현교회 대학부 및 청년부 회원을 포함하여 120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그 대회를 통하여 양국 간의 선교적 협력에 눈을 떴고, 일본 교단측에서는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회에 참가한 일본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 신앙과 인격과 생활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 대회는 격년 개최로서 내년 여름 제2회 대회로 일본 현지에서 개최될 것임에 따라 이번에 1) 이를 준비, 협의하고 일본 복음동맹교단에서 개최하는 하계캠프에 현지 답사차 참여하면서 양국 기독교청년들의 유대를 다지며, 2) 아울러 본 교회 세계선교연구원생을 주축으로 선교에 뜻이 있는 본 교회 청년들의 선교 준비를 위해 일본복음자유교회협의회 산하의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본 교회 대학생, 청년 중심으로 31명의 방문단이 조직되어 지난 8월 19일 방문케 된 것이다.

이번에 일본 선교방문단은 나고야 부근 토요하시 소재 하마나

코 캠프장에서 열리고 있었던 교단 청년부 주최 하기사련캠프에 동참하며 답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본 청년들의 생기 있는 참여 자세를 보고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중에는 작년 우리 교회에 와서 대회에 참가했던 낯익은 청년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시민들에게 전도하였다. 이날 본 방문단 임원진을 포함한 우리 교회측 6명과 동맹교단측 관계자 10명은 호산나교회당 안에서 내년 대회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지면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서한도 참석한 이시카와 교단 이사를 통해 총회장에게 전

문단 지도 김창수 목사의 전도 설교가 있었고, 양교회간의 정성어린 선물 교환도 있었다. 통역에는 박충훈 강도사가 헌신적으로 수고하였다. 집회 후 호산나교회에서 준비한 민박 가정들로 분산, 민박하였는데, 30여명의 큰 식구를 영접해준 호산나교회와 성도

주일에는 중일, 분산된 지역 교회별로 주일예배 및 간증과 찬양, 전도에 참여하며 교제를 나누었으며, 니시모토 목사가 담임하는 와라비교회에서는 김창수 목사의 주일 저녁 설교(요13: '끝까지 사랑하심')가 있었다. 방문단은 동 교단 산하 7개 교회와 17가정에 각각 분산 민박하였는데, 김창수 목사와 안동현 집사는 와라비교회의 게스트 룸에서 민박하며 많은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3일 동안이나 민박에 정성을 다해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방문단은 큰 사랑의 빛을 지고 돌아왔다. 특히 와라비교회에는 충현교회 출신인 김순옥 선교사가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 이번 일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방문은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없이 기대 이상의 방문 성과를 거두고, 일본 교회와의 교류 협력과 우리의 선교적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며, 방문자 개개인이 여러 순서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섬기면서 큰 선교적 은혜를 받고 새롭게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내년 양교회 교류대회에 대해서는 일본 교단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쌓아가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회 준비를 면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992년 한일 교회 교류 일본 선교 방문'의 은혜를 세어본다

김창수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지도)



들은 이미 작년의 그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양교회 합동 노방전도 프로그램을 위해 미리 보냈던 전도 올동 비디오를 보고 그들이 연습했던 찬양의 수준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충만한 영감의 찬미였다.

방문팀은 캠프장에서 1박한 후 토요하시 도심지로 가서 2시간 가량의 노방전도를 토요하시 호산나교회 청년들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노방전도는 대체로 3팀으로 나누어 1)복음을 외치고, 2)찬양과 올동을 하고, 3)전도지를 배포하며 개인에게 접근하는 팀전도사역이었다. 일본어는 몰라도 우리 팀도 적극적으로

달라하였다. 내년 대회도 우리가 이미 1회 대회 때 합의, 작성한 대회공동선언문의 정신을 따라 훌륭히 개최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되었다. 내년 대회는 8월 초순에 하마나코 동 캠프장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우리 교회에서는 40명 내외의 대학부, 청년부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날 저녁 호산나교회에서는 특별히 개최한 전도집회에서 방

들의 정성과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방문단의 나머지 일정은 동경 근교 와라비시에서 일본복음자유교회협의회 산하 교회와 그 성도들 가정의 민박을 통한 교제와 선교세미나로 이루어졌다. 특히 김신호 선교사와 동 교단 협의회장 니시모토 목사의 세미나를 통해서 일본 선교와 선교적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 구역예배 ●  
(1992. 9. 11)

### 우상 숭배를 피하라

· 본문 : 고린도전서 10장 14절~33절 · 찬송 / 362장, 410장  
· 요절 :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쉽지 않은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사는 우리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 속에 깊이 침식해 있는 조상 숭배의 문제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중에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상 숭배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분명한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1. 성경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자)에 예배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자)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앓은병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신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금하였고,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14절)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2.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념하는 것과 성찬식 때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대신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리스

도의 고난의 날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기념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제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사를 지냄으로 기념하는 것과 성찬식에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는 이방 문화였고, 시장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고전 8장)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먹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그것은 반드시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 ◆ 결론

이미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고 효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생전에 그들을 공경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살아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 적용 및 기도

1. 성도들이 추석을 지내면서 조상 숭배의 문제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하소서.
2. 추석을 맞이하여 출타한 구역의 식구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